

# 목적어 생략에 대한 동사의 의미표상 및 추론의 역할\*

조숙환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swcho@sogang.ac.kr

## The Role of Semantic Representation of Verbs and In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Missing Objects in Korean Discourse

Sook Whan Cho

Sogang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은 동사의 의미표상과 명사의 한정성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목적어의 생략현상을 검토하였다. 한국어는 영어 같은 언어와 달리 주어, 목적어 등이 자주 생략된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목적어 생략이 단순히 인간성 (humanness), 주체성 (agency), 한정성 (definiteness) 등 명사의 의미자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제약이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목적어 생략은 행동양상 (mold of agent act)과 원인 (cause)을 심층적으로 포함하는 소위 '핵심 타동사 (core transitive)'와 선행사의 한정성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목적어 생략은 한정성 자질을 가진 선행사가 없는 담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이다. 둘째, 타동사와 명사의 한정성과는 독립적으로, 한국어의 목적어 생략은 또한, 추론에 의거하여 보다 더 적절히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 1. 서론

한국어는 다음 (1)-(4)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상에서 목적어가 자주 생략된다.

- (1) 영호가<sub>i</sub> 순이가<sub>j</sub> Ø<sub>i, j, k</sub> 밀었다고 말했다.
- (2) 갑: 영호는<sub>i</sub> 어디에 있니?  
을: 아까 내가 가게에서 Ø<sub>i</sub> 보았어.
- (3) 갑: 영호랑 싸웠어?

을: Ø 끝냈어.  
(드라마 '비밀'에서 발췌)

목적어는 (1)-(2)의 경우, 실제 담화상의 주제어 (예: '영호')나 또는 담화상에 언급되지 않았어도 실제 상황에서 가시적인 어떤 대상을 근거로 하여 해석할 수 있다. (3)에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는 (1)-(2)와 다른 종류의 조용현상으로서, 실제로 화자의 말에 쓰인 언어 표현 이면에 전달되는 의미를 확인하는 [1], 즉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만 적합

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이다. (3)에서 '갑'은 '영호'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만, '을'은 자신과 '영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화자의 답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청자의 상식과 화자의 의도에 의거한 추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공목적어의 지시사의 해석에 대한 연구로서, 동사의 의미표상과 적합성원리의 추론을 토대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1)-(2)의 조응현상은 발화내적 영조응 (endophoric null anaphora)으로, (3)은 발화외적 조응 (exophoric null anaphora)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 같다. 이 논문은 먼저,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후에, 동사의 의미표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타동사성 (transitivity)과 명사의 한정성 (definiteness)을 토대로 발화내적 공목적어의 분포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 발화외적 조응현상에 대한 추론의 역할을 살피기로 한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 중, 촘스키 Chomsky [2]의 지배결속이론은 많은 언어의 조응현상을 규명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코울 Cole [3]과 후양 Huang [4]의 분석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중국어, 타이 Thai, 케추어 Quechua 등 여러 언어에 적용되었다. 코울의 제안은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 주어-목적어 비대칭구조의 변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가령 (4)-(5)에 있는 중국어의 경우, 공주어만이 문장 내에서 통제되어 주어-목적어의 비대칭이 관찰되는 반면, (6)-(7)의 한국어에서는 공주어, 공목적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통제되어 중국어와 다르다는 제안이 있었다.

- (4) Zhangsan<sub>i</sub> shuo [ $\emptyset$ <sub>i</sub> kanjianle Lisi].  
Zhangsan says saw Lisi  
'Zhangsan<sub>i</sub> says that [ $\emptyset$ <sub>i</sub> saw Lisi].'

- (5) Zhangsan<sub>i</sub> shuo [Lisi kanjianle  $\emptyset$ <sub>\*i</sub>].  
Zhangsan says Lisi saw  
'Zhangsan<sub>i</sub> says [Lisi saw  $\emptyset$ <sub>\*i</sub>].'  
(6) 영호가<sub>i</sub> [ $\emptyset$ <sub>i</sub> j 순이를 밀었다]고 말했다.  
(7) 영호가<sub>i</sub> [순이가<sub>k</sub>  $\emptyset$ <sub>i</sub> j \*k 밀었다]고 말했다.

한국어의 조응대명사에 대한 선행연구의 관찰은 대개 위의 (6)-(7)과 같은 현상에 국한되어 있다. 사실, 좀더 다양한 자료를 보면, 한국어의 조응현상은 동사의 어미, 동사의 종류, 담화상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지시사의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여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다음 (8)-(11)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 (8) 영호가<sub>i</sub> [ $\emptyset$ <sub>i</sub> \*j 가겠다]고 말했다.  
(9) 학생들이 선생님께<sub>i</sub> [한 학생이<sub>j</sub>  $\emptyset$ <sub>i</sub> \*j 모실거라]고 말했다.  
(10) 영호가<sub>i</sub> [ $\emptyset$ <sub>i</sub>  $\emptyset$ <sub>i</sub>\*j 비판하]기 시작했다.  
(11) 영호가<sub>i</sub> [ $\emptyset$ <sub>i</sub>  $\emptyset$ <sub>i</sub> j 비판하]기 시작했다.

(8)-(11)을 보면, 한국어의 조응현상이 단순히 주어-목적어의 비대칭의 결과로 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8)-(9)의 공주어, 공목적어는 통제된 경우로서 각각 '영호', '선생님' 이외의 다른 명사를 지시사로 가질 수 없는 반면, (10)-(11)의 예제를 보면 동사의 특징에 따라 지시사의 선정이 변이를 보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비관하다'와 같이 자기 중심의 심성적 의미가 강한 동사일수록 (cf. '비관하다') 지시사의 범주가 보다 제한적인 것 같다. (11)의 지시사는 (10)의 경우 보다 훨씬 자유롭게 결정되는데, 이런 사실은 동사의 의미자질과 조응현상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이밖에, 한국어는 (12)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듯이, 명사의 한정성 여부에 의해 조응대명사의 지시사가 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 (12) 갑: 무슨 일이야?  
을: \*내가  $\emptyset$  밀었어.

(12)는 적합한 담화로 들리지 않는다. 이 부적합성은 물론, '갑'의 질문에 어떠한 명사도 발화되지 않았는데, 공목적어가 포함된 상태로 답변을 한 '을'의 반응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혹시 어떤 지시사의 후보가 될 것 같은 명사가 담화상에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필경 '을'의 답변 후에, '갑'은 여전히 지시사의 확인을 위해 "누구? 저 사람? 이 사람?"과 같이 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조용대명사의 지시사가 대상 명사의 한정성 (definiteness)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 (13)의 대화에서 암시하듯이, 지시사 후보명사가 항상 한정성과 같은 특징을 수반해야만 적합한 담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13) 갑: 너 덥지 않나?  
 을: 우리 ∅ 마시러 가자.

사실, (13)의 공목적어의 모호성도 (12)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과연, '무엇'을 '마시[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3)은 확실히 (12)와는 달리, 적합한 담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3. 제안

#### 3.1. 명사의 한정성 (definiteness)과 동사의 의미표상

필모어 Fillmore [5]는 영어의 *eat*, *drink*, *read*, *sew*, *sing*, *cook* 등과 같은 '비핵심타동사' (레빈 [6]) 부류는 늘 비한정성 명사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화상에 한정성 명사가 등장하면 이 명사는 공목적어의 지시사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제안한 바 있다. 레빈에 의하면, 핵심타동사는 행동양상 (mold of agent act)과 원인 (cause)를 심층적으로 포함하는 부류의 동사를 지칭한다.<sup>1)</sup>

1) 레빈 [6]에 의하면, 핵심 타동사의 정의는

필모어와 관련하여, (14)를 잠시 관찰하자.

- (14) 갑: What happened to my sandwich?  
 을: \*Fido ate ∅.  
 (Fillmore, 1986)

한편, 한국어는 명사의 한정성과 비핵심타동사와의 관계가 영어와는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14)와 유사한 구조와 의미가 담긴 (15)는 확실히 적합한 담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 (15) 갑: 너 [내 점심]<sub>i</sub> 먹었니?  
 을: 응, ∅<sub>i</sub> 먹었어.

또한, 중요한 사실은 (16)에서 볼 수 있듯이, 공목적어의 지시사는 한정성 명사가 담화에 명시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한, 동사의 특징에 상관없이 동지시가 가능하다.

- (16) 갑: 내 [츄스키 책]<sub>i</sub>은 어디에 있니?  
 을: 영이가 ∅<sub>i</sub> 도서관에 반납했어.

(15)-(16)에 쓰인 동사는 각각 비핵심, 핵심타동사에 속하는데, 동사의 특징이 달라도 두 경우 모두 담화상에 등장한 한정성 명사와 공목적어의 동지시가 허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에서 지적한 (12)-(13)의 대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레빈의 핵심타동사성의 개념이 옳다면, 한국어의 공목적어는 문장에 핵심타동사가 쓰인 한, 지시사의 대상인 명사는 한정성 명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굳힐 수 있을 것 같다. 이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 (17)과 같다.

- (17) 한국어의 공목적어 제약:  
 담화상에서 핵심동사와 같이 등장하는

"[Verbs] that fit the mold of agent act on and cause an effect on patient"로서 예를 들면, *cut*, *destroy*, *kill*, *break*, *open* 등이 있다.

한정성 명사는 공목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17)에 의하면, (12)-(13)은 일목요연하게 설명될 수 있다. (17)이 옳다면, (12)의 '밀다'는 핵심타동사인데, 담화상에 한정성 명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목적어의 출현이 불가능하다는 간략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13)의 '마시다'는 비핵심동사이므로 (17)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목적어의 등장이 비문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조응현상은 (17)에서 제안한대로 명사의 한정성과 타동사의 핵심성 여부에 국한된 것일까? 이 문제는 다음 3.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3.2. 추론의 역할

한국어의 조응현상이 실제 담화에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기 위해 사전연구로서 라디오 방송 대본 2회분, 드라마 녹화 자료 3회분 (각각 60분씩)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공)목적어와 타동사의 빈도 분포 (%)

	공목적어	목적어	합계
핵심	18	82	100
비핵심	59	41	100

표1에 나타나 있듯이, 핵심동사가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대다수의 경우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82%), 비핵심동사의 경우에는 핵심동사에 비해 목적어의 생략이 훨씬 더 빈번함을 관찰할 수 있다. 왜 목적어는 비핵심동사가 있을 때 더 자주 생략되는가? 또다른 문제는 표1에서 핵심동사의 경우 생략된 목적어 (18%)가 모두 한정성 명사였는지의 여부이다. 18%의 사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생략된 목적어의 대상이 반드시 한정성을 함유한 지시사는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례로, 가령 다음 (18)과 같은 사례

가 발견되었다.

(18) 갑:  $\emptyset_i$  친구랑 싸웠어?

을:  $\emptyset_i \emptyset_j$  끝냈어.

병:  $\emptyset_i \emptyset_j$  끝냈어?

(드라마 '비밀'에서 발췌)

(18)에 쓰인 동사 '끝내다'는 핵심타동사이다. 따라서, (17)의 규약에 의하면, 한정성 명사가 수반되지 않는 한 공목적어의 출현이 불가능해야 한다. 흥미있는 사실은 한정성 명사가 발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목적어가 계속 생략되어 있어 (17)의 제약이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은 적합한 형태의 담화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18)의 적합성은 한국어의 조응현상에 '추론'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시사한다. 즉, (18)에서 청자는 '친구', '싸우다', '끝내다' 등의 표현과 화자의 표정, 말씨, 배경 등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친구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추론할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한,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발화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잠재성은 (18)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표1에서 우리는 비핵심 타동사의 경우 공목적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 만약, 추론이 한국어의 조응사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표1에서 관찰한 (공)목적어 출현빈도의 비대칭성 역시 추론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가령, 비핵심 타동사의 의미표상이 청자의 추론을 더 용이하게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경우, 영어와 달리, 목적어의 생략이 두 가지 독립적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즉, 이 연구는 목적어의 생략이 첫째, 핵심타동사와 지시사의 한정성 뿐만 아니라, 둘째 화자의 추론에 의거해 또한 결정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사실, 동사의 의미구조,

명사의 한정성, 추론 등은 인간 언어의 특징을 보편적으로 대변하는 특징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조응현상이 대조적인 양상을 띠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보편적 특징을 함유하고 있는 두 언어가 왜 구체적으로 조응현상에서는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지의 문제는 이 논문의 숙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참고문헌

- [1]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2]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3] Cole, Peter. (1987). Null objects in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18, 597-612.
- [4] Huang, C. -T., James. (1985). Pro drop in Chinese: A generalized control approach. ms.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 [5] Fillmore, Charles J. (1986). Pragmatically controlled zero anaphora. *Berkeley Linguistic Series*, 12, 95-107.
- [6] Levin, Beth. (1999). Objecthood: An event structure perspective. *Chicago Linguistic Society*, 35, 223-247.